

산동초등학교 개교 100주년 축하

학교 선생님, 동창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원지역에서는 세 번째로 1920년 4월에 개교한 산동초등학교가 이제 10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거족적인 3.1 독립운동이 일어난 이듬해에 개교한 산동초등학교는 일제치하와 해방, 대한민국 정부수립, 6.25전쟁, 그리고 경제발전 과정의 산 증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산동 지역의 문화적 구심점이자 지역공동체의 중심으로 역할을 하였습니다. 학교 운동회 때는 축제처럼 북적거렸고 시골 장날보다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운동회 달리기 상품으로 받았던 연필과 공책은 가족들의 자랑이었고 열심히 공부하여 훌륭한 사람이 되는 희망을 갖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부절국민학교, 대상분교로 분리되었다가 다시 합쳐진 산동초등학교는 7천여의 동량을 배출하였습니다. 동문들은 경향 각지에서 활발히 활동하면서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사업에 크게 성공하여 산동지역 발전과 동문들의 단합에 남달리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분도 적지 않은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부절국민학교 13회로 졸업한 저는 외교부와 중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해외에서 대한민국 외교관으로서 활동하였습니다. 부절국민학교 다니면서 쌓았던 우정과 즐거운 추억은 생각만 하여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고되고 어려운 순간마다 학교 다닐 때의 추억을 떠올리다 보면 만남이 사라지는 것 같이 느꼈기 때문입니다.

산동초등학교 개교 100주년을 맞이하여 동문들의 경험담과 성공 체험기를 책자로 엮는 것은 매우 잘 한 일로 생각합니다. 동문들의 삶을 조명하고 학교의 역사를 엮는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기념 책자의 발간을 축하하며, 동문간 우정을 더욱 다지고 후배들에게 꿈과 희망을 갖게 하며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학생 수가 줄어드는 등 어려운 상황이지만 산동초등학교가 더욱 발전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강국 전 대한민국 주 시안 총영사 드림